

#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 ⑤ 로트와일러 / Rottweiler



글 / 박수영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로트와일러를 “가장 힘이 세다” 또는 “가장 짐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했을 때 반대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외국영화를 통해서 경찰특공대와 로트와일러가 함께 범인을 소탕하는 모습이 나 주인공이 이 개에 쫓겨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 왔다.

그래서 상당히 포악하고 공격적인 개로 인식할지도 모르나 실제로 로트와일러는 활동성과 공격성만큼 강한 침착성을 지니고 있는 견종이다.

로트와일러 유래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로마제국의 군대가 원정길에 동행하였던 마스티프형의 개에서 그 유래를 추정하고 있다.

로마군대는 식량으로 끌고가는 가축을 인솔하고 군대의 경비견역할을 할 수 있는 마스티프형의 개를 동행하였는데 군대가 퇴각후 일부 남게 된 개들이 남부 독일의 로트바일 지방에서 개량되어 지금의 로트와일러가 되었다고 한다.



### 1. 성격

견고한 체구와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고 지구력과 민첩성을 겸비하여 고난도의 운동능력과 훈련능력이 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다소 공격성이 있으나 쉽게 흥분하지는 않는다.

다소 강한 공격성을 나타내지만 자신과 자신 주변의 것들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강하여 경비견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본적으로 조용하면서 용맹스러운 이 개는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반응한다.

로트와일러의 강한 신체적, 정신적 기질을 나타내는 행동일 것이다.

비겁함이나 소심함이라는 표현을 떠올릴 수 없는 로트와일러는 성장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성격과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릴 적에는 여느 강아지들

처럼 장난을 좋아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다가 성견이 되면서 강인한 인내력과 진지하고 영리한 눈빛을 갖게 된다.

## 2. 외형

로트와일러는 전체적으로 단단한 골격과 근육, 짧은 털로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실제로 강인함을 넘어 다소 공격적인 인상) 크기는 수컷 63~68cm, 58~63kg / 암컷 58~63cm, 45~61kg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털(블랙탄)은 짧고 술이 많고 양쪽 눈의 윗부분, 턱, 입술, 가슴, 사지에는 확실한 윤곽의 반점이 있다.

머리의 두개부는 크고 양쪽 귀 사이는 폭이 넓다. 등은 힘있게 곧고 엉덩이는 폭이 넓고 가슴은 깊고(체고의 50%에 달한다) 넓으며 꼬리는 등과 평행하다.

앞발은 곧고 앞발의 중간 관절부는 몸통쪽에 있으며, 근육이 잘 발달하여 있다.

뒷발은 대퇴부와 하퇴부의 근육이 잘 발달하여 있고 스티플은 적당한 각도로 굽어져 있고 발바닥은 두껍고 탄력이 있다.

로트와일러는 활기 있는 걸음걸이를 보이는데 특히 다른 견종에 비해 강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다.

## 3. 사양 및 건강관리

로트와일러를 기르기에 아파트나 실내의 환경은 적절치 않으며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만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적절한 운동과 훈련을 시키기에 곤란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강한 힘과 공격성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사회화교육과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연령에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다면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강인한 신체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야외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기후조건에 적응하여 무리없이 생활하고 먹이는 지나친 과식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운동이나 훈련 등을 하면서 개와 함께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고관절이형성이나 백내장, 망막염 같은 눈의 질병을 유의해야 한다. ⑤

(다음호에 계속)

